

전 남

물관리로 선진농업 앞당긴다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수리시설물 원격 조정 인력·용수 절감 효과

“수문을 열고, 닫으려면 200 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자동으로 바꿔 주세요.”

지난 6월, 극심한 가뭄 당시 영광 지역 현장을 찾았던 박세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연로한 수리시설 관리원의 하소연을 들었다. 농수로 중간에 설치된 수문을 수동으로 개폐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관양기(捲揚機)로 불리는 수문 개폐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으로 운전대를 힘겹게 돌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1년부터 농업용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사업(TM/TC)’을 추진하고 있다. TM/TC는 원격측정(Tele Metering)·원격 조정(Tele Control System)의 약어이다.

◇2001년부터 용수관리 자동화=농업용수는 우리나라 수자원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관개용수를 절약할 수 있는 과학적인 농업용수 관리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농업 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관리원의 자동화·전산화도 필수적이다.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은 그동안 수동으로 조작했던 수리시설물을 전동으로 조작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관리하던 것을 전자통신·컴퓨터를 이용해 원격 관리함으로써 현대화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운영자가 중앙관리실인 지사에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현지의 상황을 실시간 파악, 통합 감시를 할 수 있고, 비상상황 발생 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수 예·경보 등 주민들에게 상황전파를 할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리시설은 수원공 관리인과 수로감시원의 인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인건비의 상승으로 유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1년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직원들이 물관리 자동화시스템(TM/TC)을 활용해 관내 농업용수 시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년 4곳 선정 100억 규모 자동화사업 추진

실시간 감시 홍수 예·경보 등 영농편의 증진

부터 매년 전국 94개사 중 4개 지사를 선정해 100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까지 27개 지사 632개소에 설치 완료돼 운용중에 있다. 용수관리 자동화사업 구축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 자동화율은 아직 4.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 2001년 나주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사업비 142억원을 투입해 담양·장성·영광지사 등 4개 지사 ▲용수로·수문 98 ▲저수지 8 ▲양·배수장 38 개소 등 총 144개소에 대해 자동화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이다. 도내 자동화율은 3%대.

현재 고흥지사와 영광지사에 올해와 2013년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46개 시설이 추가로 자동화될 예정이다.

◇전국 용수관리 자동화율 4.6% =공사는 TM/TC 추진에 따른 이

점으로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용수의 합리적 균등배분 ▲농업용수의 다목적 이용 ▲수리시설 관리원 및 전력요금 등 물관리 비용 절감 ▲시설보전과 재해의 예방 및 경감 ▲물관리 기술의 선진화 등을 꼽고 있다.

우선 이용가능한 농업용수의 양과 기상, 재배작물 등 자연 조건을 고려한 용수 수요량과 실제의 용수 이용상황을 중앙관리소에서 종합적으로 연계 파악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용수이용의 효율증대와 용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또 자동화 대상구역 내에 용수 수급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각종 수문을 조절해 용수를 적기·적소에 합리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시험결과 수로계통별 특성을 고려한 용수공급 등 용수공급의 불균형과 과도한 용수의 낭비와 부족을 방지해 용수를 13.4%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기·적

소에 각종 수문·양수장·배수장 등 시설물을 가동시킬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운전애 따른 전력요금을 13.6%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중앙관리소에서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원격 측정하고 조절함으로써 수리 시설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수리시설 관리원 24%·직원 19%)과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초기에는 VHF(라디오 통신방식)를 적용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 기술발전이 힘입어 현재는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김형용 전남지역 본부장은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시스템 운영을 통해 물관리에 소요되는 절약된 노동시간을 농의소득으로 전환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시스템을 통한 축적된 물 관리 DB(데이터베이스)도 구축 가능해 예측가능한 물의 통제가 가능하다”며 “도내 수리시설에 자동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첨단 용수관리 시스템으로 농업인 영농편의 증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무안 불법 개사육 판친다

삼향읍·몽탄면 등 40여곳...악취 등에도 단속 미온적

초의선사 탄생지·오송우 미술관 찾는 관광객 '눈살'

무안군 삼향읍과 몽탄면 등 수십 곳에서 불법으로 개 사육장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는 군 대표적 관광지인 초의선사 탄생지와 오송우 미술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지만 인근 1650㎡(500여평) 규모의 조립식 사육장에 1000여마리의 개가 사육

되고 있다. 1~5m 정도 크기의 우리 100여개가 있고, 1개 우리에 개 1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초의선사 탄생지와 미술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삼향읍 덕산마을 역시 20년 전에 돼지축사로 사용했던 농장에서 개를 불법 사육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개 사육장은 무안군 삼향읍 왕산·유교·지산리와 몽탄면 일원에 30~4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를 사육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법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코를 찌르는 악취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고, 주변에는 파리와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등 최악의 환경”이라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군내에는 개 사육장이 32곳 허가돼 있다”며 “불법 개 사육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신안 임자도 '민어 축제' 열린다

내일부터 후리질 체험·낭만 콘서트 등 다채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으로 손꼽히는 민어(民魚)를 주제로 한 축제가 11~12일 신안 임자도 대광 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천사의 섬! 여름이야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개마기 체험, 후리질 체험, 해변 모래 조각 체험, 가족 해변 미니골프 등 관광객과 함께하는 체험행사 위주로 펼쳐진다. 바닷가의 한여름 밤과 분위기를 맞는 낭만 콘서트도 진행될 계획이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는 국민생

활체육 전남 여자친화장사 씨름대회와 임자비치 남녀 씨름대회도 함께 열린다.

임자도 인근 해역은 미네랄 등 각종 영양염류가 풍부해 민어의 주산란 서식장이다.

30년전에는 민어가 많이 잡혀 대광해수욕장 앞 무타리섬에서 파시(波市=고기가 한창 잡힐 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생선 시장)가 열리기도 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여수 시내버스

다시 정상 운행

박람회 끝나 유료화도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중 무료 운행됐던 시내버스가 오는 13일부터 정상 운행된다.

요금은 성인 1100원·청소년 800원·어린이 500원이며, 교통카드 이용 시 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회 무료 환승도 가능하다.

시내버스 무료운행은 여수시가 시내권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승용차 안타기 운동’에 대한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자 여수지역 시내버스 58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1일~8월 12일까지 94일 동안 추진한 사업이다.

이로 인해 버스 이용객이 박람회 개최 전보다 평균 194% 증가했으며, 승용차 안타기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많아져 시내권 주요도로 속도가 평균 4.4% 빨라졌다.

시는 앞으로 박람회 폐막 이후 요금징수에 따른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원상 복구하는 한편 무료운행 중단에 따른 홍보 포스터를 붙일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신안군-한예중 '섬&아트 프로젝트 사업' 협약

섬 주민들에 문화예술 옷 입힌다

신안군과 한국예술포합학교는 지난 8일 한국예술포합학교 회의실에서 ‘섬&아트 프로젝트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72개의 유인도 섬 주민에게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섬&아트 프로젝트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한국형 해양생태 문화 예술의 모형’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예술포합학교 김덕수 예술감독(사물놀이 단장)이 중심이 돼 음악인 등 6개원과 서양화가 김

환기(1913~1974) 화백의 고향인 안좌도 등 6개섬을 대상으로 ‘천사섬에 여섯 가지 색을 입히다’라는 주제로 ▲아트캠프 ▲예술가 생활과의 조우 ▲섬 문화의 원형개발 ▲예술학교 분원 ▲예술지평 확장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9월중에 안좌면에서 ‘섬&아트 프로젝트 협력사업’ 선포식을 갖고 천사섬의 문화예술 중장기 플랜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www.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인터넷·안마기·세션·세화

2012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자격증반 교육일정: 2012년 8월 초 개강... 2012-2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